

故 이우정 선생 사회장



- 일 시 : 2002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 예배실
- 화장지 : 서울시립 장제장(벽제)
- 안 치 : 서울시립 추모의 집

故 이우정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故 이우정 선생 사회장



- 일 시 : 2002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 예배실
- 화장지 : 서울시립 장제장(벽제)
- 안 치 : 서울시립 추모의 집

故 이우정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장례순서

진행 : 이오겸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

■ 묵념 다함께

■님께 바치는 노래 I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은숙
(국립오페라단 단장)

■평화의 말씀 박성자
(목사)

■이우정 선생님이 걸어온 길 정보영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황인성
(의문사건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장영달
(국회의원)
김훈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장례위원회 부위원장)

■님께 바치는 시 고은
(시인)

■ 영결사 조희순
(목사/장례위원장)

■님께 바치는 노래 II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안혜경
(가수)

■여도와 보내드리는 말씀 한승헌
(변호사/장례위원회 고문)
지하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도위원/장례위원회 부위원장)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장례위원회 위원장)

■기도 김이근
(교수/한신대학원 원장)

■고인에 대한 헌화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한신여동문회) 다함께

■호상의 인사 김상근
(목사)
이길현숙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축복의 기도 윤기석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꽃상여 라고 평화의 나라로 가시옵소서



영 결 사

이우정 선생님은

영원한 안식처로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 다하시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에 몸과 마음과 혼을 바치 사셨기에 아무 아쉬움 없이 잠드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무거운 장송곡이 아닌 환송의 노래 속에서 선생님과의 이별을 고히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평화·통일운동 등 우리사의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활동하시던 선생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또렷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유신을 앞세워 군사독재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70년대에, 선생님은 유신을 반대하는 기독교 교수 운동에 참여하시다가 서울여대 교수직에서 해직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시작된 선생님의 민주화투쟁은 역사의 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기반으로 선생님은 구속자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억울한 율부짓음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목요기도회를 조직 하셨습니다. 목요기도회는 정치와 민주화에 소극적인 우리 여성들이 민주화 운동의 주체적 활동가로 나서게 된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요기도회는 지금도 구속자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가 이어받아 우리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의 강력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유신철폐운동,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 일본 교회여성들과 함께 기생관광 반대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또한 3·1 민주화 구국 선언에 앞장서 참여하신 그 기개와 용기는 꿈으로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해직교수들을 복직시키려는 유신정부의 유희책이 있었을 때, 선생님께서서는 “대학에서 가르칠 사람은 많지만 민주화 운동에 나설 사람은 없으니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약한 사람들에 서셨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몸집으로 군부세력에 맞서 싸우신 선생님의 신앙의 힘에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을 잃지 않으셨으나 선생님의 헌신적인 삶은 참으로 깊고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선생님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신학자협의회, 평

회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보적 여성운동의 주춧돌을 놓으셨고 많은 후배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 민족의 반세기의 갈등을 극복하는데도 큰 힘을 그으셨습니다. 세계냉전시대가 사라져가던 때 관문점을 가로질러 남북여성들이 함께 만남으로서 냉전의 마지막 장벽을 없애고자 하셨습니다. 그 열원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 평화 여성의 역할 국제포럼회"를 조직 하셨습니다. 남북여성들의 만남이 동경에서 시작하여 관문점으로 오고 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성들이 화해하며 앞장서는 역사적 계기를 단드셨습니다. 선생님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 되어 젊은 후배들이 힘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소원인 우리 겨레의 통일과 화해를 후배들에게 맡기시고 쉼의 떠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생님의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조직하고 장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온화하시면서 동시에 그렇지도 강인한 선생님의 모든 것을 이어갈 것입니다.

고이 고이 잠드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2002년 6월 3일

이이효자가 쓰고 조화순이 읽습니다

故 이우정 선생 연보

- 1923년 8월 1일 이하주 씨와 윤학경 여사 사이에서 태어나시다.

- 1936 : 서울 덕수 초등학교 졸업
- 1940 :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48 : 한신대 전문부 졸업
- 1951 : 한신대 본과 졸업
- 1951 - 1953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일마누엘 대학 수학
- 1993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빅토리아 대학 명예 문학박사
- 1953 - 1970 : 한국신학대학교수
- 1971 - 1972 : 한국기독교교육협의회 교육부장
- 1972 - 1974 :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 연합회 베다니 정신도 교육원 원장
- 1974 - 1976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1973 - 1977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 1977 - 1981 :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 1978 : 통일방직사건 긴급 대책위원회 실행위원
원풍모방 노동자조합 대책위원장
- 1978 - 1981 : 한국기독교학생회 이사장
- 1980 : '통일방직해직노동자 복지추진위원회' 실행위원
- 1982 : 한빛교회 장로 임직
- 1984 - 1985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회장
- 1985 - 198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장
- 1985 - 1992 : 세계교회협의회(W.C.C.) 선교위원회(C.W.M.E) 부위원장
- 1987 - 1990 :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 1991 - 2002 : 한국여성단체연합 고문
- 1990 - 1992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부회장
- 1991 - 1993 : 신민당 수석 최고위원
- 1992 - 1996 : 대한민국 국회의원
- 1994 - 1996 : 대한민국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1996 - 2002 : 새정치국민회의 상임고문

- 1997 - 1999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수석대표
- 1998 - 2002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1998 - 2002 : 대통령 통일 고문
- 1998 - 2002 : 제 2건국위원회 공동위원장
- 1998 - 2002 : 통일부 민주평통자문위원
- 1998 - 2002 : 의회를 사랑하는 여성모임 고문
- 1999 - 2002 : 강요문화개혁위원회 공동의장
- 1999 - 2002 : 정치개혁위원회 고문
- 2000 - 2002 :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2000 - 2002 : 민주화보상위원회 위원장
- 2001 - 2002 : 민주화보상위원회 위원

故 이우정 선생 수상내역 및 저서

◆ 수상내역

(1) 각종 상 수상

- 1976. 11 미국의 Christianity and Crisis 인권상 수상
- 1995. 4 한신대학교 한신상 수상
- 1996. 12 일본 아시아 인권상의 여성 인권상 수상
- 1997 아시아인권기금상 수상
- 1999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2) 기타 감사채 수상

- 1983. 9. 27 원동모방 노동조합을 위한 대책위원회
- 1990. 2. 3 한국여성단체연합
- 1990. 6. 27 전국교회원노동조합
- 1992. 6. 27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1993. 7. 5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1993. 11. 3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1993. 7. 5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1996. 1. 백범 김구 선생 살해 진상규명위원회
- 1998. 2. 2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8. 5. 15 한겨레신문사
- 1995. 12. 6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 1995. 11. 14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중앙회

(3) 기타 공로채 수상

- 1981. 6. 1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연합회
- 1983. 6. 1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1991. 5. 13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 1997. 3. 9 한국여성단체연합
- 1999 국민훈장모란장

◆ 저서 및 역서

• 저서

- 『한국기독교여성 100년의 발자취』, 이우정 저
- 『기장여성교회 60년사』, 이우정 이현숙 공저, 기장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편
- 『여성들을 위한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이우정 편
- 『회갑기념논문집』, 한신여동문회 편
- 『고희기념논문집』, 한신여동문회 편
- 『In Search for our Foremothers' Spirituality』, 이우정 저

• 역서

- 『성서로 본 여성의 지혜』
- 『성서 연구방법』

• 그의 논문 다수

장례 위원회

◆ 고문

강대인, 강문규, 강원용, 강희남, 고 은, 고영근, 김동길, 김병상, 김성수, 김수환, 김숙희, 김승훈, 김명경, 김옥라, 김용준, 김원기, 김정래, 김정문, 김종하, 김종호, 김관국, 나선정, 노명식, 리영희, 문동환, 박상중, 박순경, 박영숙, 박용길, 박청수, 배다지, 백경남, 백도용, 변형훈, 서광선, 서영훈, 손장태, 송기인, 신창균, 안제희, 오재식, 오충일, 유동식, 윤기석, 윤기열, 윤영규, 윤계철, 윤후정, 윤방희, 이광자, 이경숙, 이재준, 이돈명, 이만섭, 이문영, 이인호, 이상현, 이상희, 이소신, 이강식, 이혜룡, 장기현, 장 상, 장술병, 전경연, 정의숙, 정철범, 정해숙, 조아라, 조용순, 조준희, 지명관, 지 선, 정 화, 최희섭, 표용은, 한승현, 한완상, 현영학, 홍성근, 홍광의

◆ 장례위원장

강만길, 박형규, 이효재, 조희순, 한화갑

◆ 장례부위원장

김근태, 김은옥, 김원길, 김이근, 김종무, 백도용, 윤수경, 이문우, 이미경, 이부영, 지은희, 함서웅

◆ 장례위원

<여성계>

강교자, 강금실, 강기원, 장남식, 장영옥, 장옥경, 강해숙, 고기효, 고은정순, 박배희, 구명숙, 권순정, 권희순, 김경숙, 김경희, 김덕현, 김명주, 김명현, 김상희, 김상희, 김선실, 김숙임, 김순옥, 김신실, 김옥현, 김애실, 김영순, 김용환, 김유순, 김은옥, 김은경, 김은경, 김은희, 김영정, 김인숙, 김인자, 김지선, 김찬숙, 김향규, 김현선, 김현자, 김혜경, 김효선, 김훈순, 김희원, 김희은, 나선정, 나영희, 남윤인순, 유숙현, 문선경, 문예란, 문화령, 박경희, 박남식, 박민자, 박선희, 박성자, 박순경, 박순희, 박영미, 박옥희, 박양실, 박정숙, 박혜란, 박효숙, 배정희, 변지숙, 성명옥, 성봉희, 성영자, 손덕수, 송금심, 송보경, 송서애경, 송영자, 송혜림, 신나균, 신연숙, 신인령, 신필균, 신희은, 심 명, 심영희, 안상남, 안이정선, 양혜경, 여현숙, 오성애, 오한숙희, 유춘자, 윤명선, 윤문자, 윤순녀, 윤영애, 윤장순, 윤정교, 윤정숙, 윤정옥, 윤정혜, 유지희, 원금순, 이강실, 이경숙, 이경순, 이경희, 이재경, 이기원, 이길원숙, 이낙영, 이문숙, 이문우, 이문자, 이미아, 이범준, 이상덕, 이수자, 이숙영, 이순희, 이옥경, 이연옥, 이영순, 이재자, 이원래, 이윤희호, 이재자, 이운경, 이은미, 이재희, 이정

순, 이정욱, 이정자, 이정희, 이철순, 이해경, 임명자, 임재권, 임정선, 임정희, 임화공, 임화정, 임희숙, 장정순, 장필화, 장하진, 장향숙, 장강자, 정경아, 정보영, 정선순, 정세규, 정연순, 정진성, 정진자, 정태효, 정태효, 정현택, 조규혜, 조상혜, 조시현, 조연홍, 조화순, 조희욱, 지영선, 진명자, 진안순, 차경애, 차명희, 채윤희, 최만자, 최신혜수, 최영순, 최영애, 최영희, 최은순, 최티김, 한국염, 한명숙, 한명희, 한송죽, 한혜빈, 홍숙자, 홍은희, 홍영희

<종교>

장신석, 고재석, 권오성, 권호경, 김거성, 김경남, 김경재, 김근상, 김관용, 김동환, 김복기, 김영주, 김용복, 김용환, 김원배, 김재열, 김봉부, 김창택, 김천걸, 나상기, 나혁길, 류태선, 문규현, 문정현, 박경서, 박근원, 박동일, 박순수, 박재순, 박종열, 박종화, 배태덕, 박 안, 서평일, 서도섭, 성 임, 성태용, 손규태, 유경재, 유길수, 이광일, 이근복, 이명남, 이세중, 이종구, 이해동, 이해학, 임홍기, 이항우, 이해학, 장덕필, 장일조, 전광희, 전병근, 정명기, 정용섭, 정지강, 정대기, 주재용, 지 선, 진 관, 채수일, 최의팔, 최원택, 함석용, 허광일, 허용현, 홍근수, 황성규, 황인성, 효 림

<시민사회, 통일, 노동>

장신환, 장영선, 고희범, 구상모, 권오현, 김경호, 김광태, 김규현, 김근수, 김병서, 김상일, 김상일, 김성은, 김숙희, 김순숙, 김윤수, 김윤자, 김은형, 김인희, 김정열, 김제남, 김종원, 김지매, 김진근, 김천주, 김형문, 김형주, 김홍현, 김홍현, 나희용, 나혁길, 남궁환, 남상현, 남상현, 노수희, 노진민, 단병호, 도 관, 도광호, 문규현, 문상주, 문성근, 문정현, 박강수, 박대삼, 박석은, 박순경, 박순덕, 박순희, 박순희, 박영준, 박용길, 박원순, 박재진, 박정자, 박주희, 박진영, 배다지, 백순환, 백승환, 범 타, 서경석, 성유보, 손병두, 송두환, 송철주, 신동근, 신광균, 신현영, 양길승, 오세철, 오종열, 유시춘, 윤경도, 윤한탁, 이갑용, 이관복, 이남순, 이남순, 이남주, 이비희, 이병용, 이성림, 이세중, 이수갑, 이수근, 이수연, 이수호, 이승환, 이정욱, 이종진, 이호철, 임기환, 임방규, 장석용, 장승하, 전상봉, 전창일, 정기훈, 정광훈, 정진권, 정현찬, 정현찬, 조성우, 조순덕, 조웅기, 조창태, 조희연, 진현철, 채수현, 원영세, 장 화, 최 열, 최영도, 한상열, 한양수, 함석재, 홍근수, 홍근수, 황 진

<학계>

김성재, 김주숙, 김진균, 김효진, 노정선, 민경태, 민영진, 박경미, 박경서, 박명철, 박순서, 박관영, 백낙청, 소홍열, 손승희, 송기숙, 신옥희, 신윤표, 신현순, 오세철, 오인택, 오인택, 유석성, 윤병삼, 이경숙, 이광우, 이만열, 이명현, 이삼열, 이석영, 이성은, 이상희, 이종오, 이준모, 임태수, 장일선, 장일조, 정은숙, 정광열, 조창현, 주선애, 차봉희, 최순남, 최영실, 최장길, 한상진

<정치>

장숙자, 권영길, 김경전, 김기재, 김택규, 김방원, 김상현, 김명원, 김영배, 김윤용, 김원기,

김원웅, 김정숙, 김중권, 김창조, 김태항, 김홍신, 김화중, 김형호, 김희선, 문희상, 박광태, 박근혜, 박명환, 박상천, 박주천, 박헌기, 박용석, 설훈, 손희정, 송광호, 신기남, 신낙근, 안동선, 유용태, 이규태, 이금라, 이미경, 이부영, 이연숙, 이용삼, 이용희, 이인재, 이종찬, 이창복, 이치호, 이 협, 임진출, 임창렬, 장태환, 권용원, 권제희, 정동영, 정대철, 조태숙, 조부영, 조순형, 천용택, 최든용, 최명현, 최영희, 최재승, 추미애, 한광숙, 함석재, 허운나

<한빛교회>

유원규, 김정숙, 김경영, 김명희, 김순덕, 김순편, 김현철, 김정순, 박갑영, 박명자, 박종만, 송영관, 안인숙, 오문신, 오승봉, 윤옥경, 이병태, 이순신, 이양자, 이윤경, 이학진, 정경희, 정금란, 정원정, 정호신, 재갑재, 차풍길

◆ **집행위원장** : 이재경, 이오경숙, 오영석

◆ **집행위원회**

총무위원장 : 유원규, 남인순 (위원 : 전은주, 김은희, 이은하, 김현희, 최현진, 장희원, 박수선, 이원표)

의전위원장 : 유선호, 이미경 (위원 : 이혜경, 황금명윤, 조영희, 최문성미, 안혜경, 정은숙)

재정위원장 : 장영달, 김희선 (위원 : 김정수, 김은희, 채리미영)

홍보위원장 : 임재경, 김숙임 (위원 : 정경란, 김기선미, 김엘리, 금박병현)

연구위원장 : 채수일, 한국열 (위원 : 이우정 선생님이 관계하신 교회, 여성, 평화운동 활동가와 한빛교회, 한국신학대학원 학생들)

자산위원장 : 김재열, 정보영

설의위원장 : 유경재, 정현배 (위원 : 성혜룡, 임홍기, 배광진)

◆ **유족**

심정섭, 이혁기, 정혜연, 이력기, 조현자, 이남기, 김재숙, 이근기, 고정란, 이인기, 이순기, 신동배, 이육기, 구자운, 이정기, 이재봉, 이복기, 김기봉

◆ **호상**

김상근, 이김현숙

故 이우정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

한 평생, 진보적 여성운동과 민주화, 평화통일, 신학발전을 위해 헌신한 故 이우정 선생님의 걸어온 길은 격동의 한국 역사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교수, 장교, 여신학자, 민주투사, 여성운동가, 국회의원,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변신과 함께 이어진 왕성한 활동은 이 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여성운동의 대모인 故 이우정 선생님의 삶 자체는 운동이고 신앙이며, 삶과 실천의 통합입니다.

1. 교회여성운동의 지도자, 교수, 여성선학자

故 이우정 선생님은 식민지하였던 1923년 신소설의 개척자 이해조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민족적 암흑기에, 삶과 의미와 새로운 희망을 기독교에서 발견한 故 이우정 선생님은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와 캐나다에서 신학수업을 받고, 한국신학대학과 서울여자대학교 등에서 교수생활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74년,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극도로 제한된 유신체하에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후, 故 이우정 선생님은 교수시절부터 시작한 교회여성단체활동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노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을 통하여 청계천, 중앙천변의 칠커민들, 해고당한 여성노동자들, 구속된 학생들의 가족 등,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분노와 고통을 함께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이끌며 기성권 광저지운동에 앞장서고,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문제를 정치화하였습니다. 부유된 학생, 청년과 종교지도자들의 석방탄원운동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이를 세계교회와 여성계에 관심을 호소하며 국제여론 형성에도 정력을 바쳤습니다.

1980년 3월에 서울여대에 복직된 故 이우정 선생님은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7월말에 다시 해직통고를 받고 그해, 9월 유니온 신학교 초빙교수로 초빙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신학 연구에 몰두하면서,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새로이 해석하고, 여성신학 강의를 시작으로 여성신학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여성학자협의회와의 결성, 여성교회 설립,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등 여성신학 전문기관을 탄생시키고 키우는 열매로 발전되었습니다.

나아가 1990년도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W.C.C.)신교위원회(CW.M.E) 부위원장직에 활동하며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여성의 지도력을 세계적으로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2.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태모

故 이우정 선생님의 교회여성운동과 세계기독교활동은 유신체제의 탄압을 맞서 투쟁한 민주화운동과 깊은 맥에 있습니다. 1970년대 유신체제의 부정의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함께 노동자들의 인권 회복과 정치민주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수사를 받는 곤욕도 치렀습니다. 동아 조선 해직기자 돕기 등 계속되는 크고 작은 시국사건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고난의 현장에는 선생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1976년 3월 1일, 해직교수, 종교인, 재야인사 11명과 함께 준비된 '31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함에 따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일명 명동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형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이우정 구제를 위한 세계교회여성들의 열렬한 탄원으로 형 집행 정지처분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유신말기에는 통일방략 사건 긴급대책위원장, 원종모방사건 대책위원장 등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갖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대한의 딸들 근로여성 만세 절대 찍이지 않는다'라는 선생님의 연설을 기억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대모로서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여성의 권익형성과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인

1990년대 故 이우정 선생님은 또 하나의 삶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1988년 총선 이후 신민주연합의 위원장으로 천거되고, 조직계원과 함께 평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1992년 총선 후, 전국구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상임고문, 제 2건국위원회 공동위원장, 통일부 민주평통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참여는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에 아낌없이 자신을 바쳤던 헌신과 신앙의 발로였고 故 이우정선생님의 신념이 보다 현실 정치적으로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여성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을 맡아 여성들의 불합리했던 동성동본 금혼금지법을 제정하여 위한 관철을 성사시키는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세심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연보하심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시기 직전까지도 민주화 보상을 위해 세심한 신경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4. 진보적 여성운동 창립과 여성평화운동에 평생 헌신한 여성운동가

故 이우정 선생님은 격동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더 집중을 하면서 진보적 여성운동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80년대 군부의 강압정치에 대한 저항 물결

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대생 추행사건대책활동, 성도 성유 불매운동, 25세 여성 조기 청년제 철폐운동, 부산서 성고문대책활동, 박종철 물고문 지사 사건, 3.8여성대회개최, 그리고 민중생존권 대책위원장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기층여성운동 등에 헌신하였습니다.

나아가 1884년 80년대 민족, 민주, 민중 3대 슬로건을 갖고 운동을 하던 진보적인 교회여성 운동단체들과 여성운동단체들을 결집시켜, 1987년 21개의 진보적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였고,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故 이우정 선생님의 열정은 이념이나 세대를 넘어 민중여성들의 인권회복과 오늘날의 강력한 여성운동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계몽운동, 남남고용평등법 개정, 영육아보육법 제정 운동을 이끌고,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5. 민족의 화해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평화운동가

故 이우정 선생님은 1991년 5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민간자원의 남북여성 모임을 성사시킴에 따라 한반도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한 여성 교류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관문질을 통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방법을 모색하는 등 민간 여성평화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997년 전문적 여성평화운동체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의 기반이 되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북한여성과 어린이돕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분유 26톤을 북한여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평화교육 사업, 통일사업, 평화군축사업, 탈북여성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전쟁과 폭력이 아닌, 화해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식 고양과 정복미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5주년 행사에서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노력을 다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평화운동의 사명감을 역설하였습니다.

선생님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세계여성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 9월에는 북미교회여성들 그리고 북의 여성들과 2001년 9월 22일-10월 1일 도쿄도 근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연대하는 여성회의를 열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을 세계교회여성들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故 이우정 선생님은 여성해방과 민족통일, 신학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면모하신 중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여성,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다 5월 30일 4시 18분 향년 79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애도와 보내는 말씀

민주 여성운동의 선구자, 이우정 선생님 영전에

지하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도위원/장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정 선생님! 이우정 선생님!

민주 여성운동의 선구자이신 우리들의 선생님!

그러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성들이 달하는 불평등에 도전하신 여성운동의 동지이신 선생님!

남북 분단극복은 여성들의 힘을 모을 때만 가능하다는 확신으로,

이 땅의 평화운동을 일구어 내신 선생님!

선생님께서서는 '나는 3일만 누웠다가 가면 좋겠다'고 평소 원하시던 대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세월이 지난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우리는 이우정 선생님만큼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두서있던 시기에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을까?' 를 자문하면서 선생님이 해오신 일들의 의미를 이제서야 다시금 재단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전해드릴 새도 없이 선생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언제나 여성들의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 계셨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1987년, 모두 슬죽이고 지켜보던 그 때, 선생님은 박종철 열사와 민주주의의 죽음을 예도하는 배포자기를 머리에 쓰시고 남영동 대공본실 앞에서 벌인 여성들의 시위에 한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리울 때면 이 때를 생각하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힘을 모아 진보적 여성운동의 대표단체인 여성단체연합을 만드시어 초대회장으로 여성운동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그 자그마한 몸으로 남북 간의 민간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1992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포럼회를 위해 여성대표들이 당당히 관문점을 지나 북의 여성대표들과 포옹할 때 남북이 하나되는 희망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온화한 성품과 끈기 있는 설득력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이 일을 성사시켜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결성과 민화협의 상

인의장 활동 등으로 남북통일과 평화를 위해 일해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언제나 고통받는 여성, 가난한 여성들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스스로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가난한 여성이 되셨고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원하셨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활동을 통해 교회 내 여성·평화운동을 이끄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들의 편에 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시면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 내셨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해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우경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께서 닦아놓으신 큰 길을 편안하게 걸으면서도 불명도 하고 힘겨워도 하면서 큰 길을 닦으신 분들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끔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시느라 힘겹게 보여 걱정을 하면 '나는 괜찮아. 일 열심히 하세요' 하시면서 따뜻한 미소로 답하시던 선생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를 기증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회장을 하고 나면, 선생님께서서는 평안한 나라로 훨훨 떠나실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뜻대로 일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이 일구어 내신 여성운동, 평화운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오니, 무디 편안히 가시옵소서!

2002년 6월 3일
지하은희 드림

모든 시름 잊으시고 편히 쉬소서

한 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장례위원회 부위원장)

우리 시대의 큰 별이 졌습니다.

여성제와 정치계의 든든한 가동이었던 이우경 선생님이 돌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진 자들의 탐욕에 맞서고, 소외된 여성과 희망을 나눴던 작지만 당당했던 그 모습을 이젠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셨던 선생님은 이제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선생님을 황당히 보내고 나서야 우리들의 무심함을 깨닫습니다.

선생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선생님의 용기를 보며 우리는 민주화의 의지를 더욱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해직교수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당신의 안위보다는 민주화운동에 걱정하던 선생님은 진정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니다.

흔탁한 정치의 세계에 직접 뛰어 들었을 때도 선생님은 원칙과 소신을 지켜오셨습니다. 평생 실천해온 사랑도 모자라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도 선생님은 당신의 몸을 나눠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넓은 마음과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선생님의 소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와 평등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평화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이 하나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큰 뜻을 가슴에 새기며 통탄의 마음으로 선생님을 보냅니다.

몸은 떠나시더라도 시대를 걱정하던 선생님의 큰 뜻만은 놓고 가십시오.

남아있는 우리들 마음에 선생님의 큰 뜻은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젠 모든 시름 잊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2002년 6월 3일

한화갑 드림

추 모 글

여성인권, 평화운동의 대모 이우정선생님을 추모하며

김 은 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선생님, 이렇게도 빨리 선생님이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떠나시던 날, 여성부 자문위원회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발언을 하시고 글히 다음 모임에도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환한 미소에 미안해하시는 그 표정으로 종종떠나시던 모습으로 이 세상도 떠나신 겁니까? 왜 그렇게 급히 떠나셨습니까? 아직도 오래 오래 사실 줄 알았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순수한 인간애적·낭만적 운동철학의 종언인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70년대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불길처럼 솟아올랐을 때, 유일한 여성단체였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이끌며 여성노동자의 억압현장에도, 동아조선 해리기자들의 투쟁현장에도, 양심범 가족들을 위한 배려에도 투신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칠거민들의 농성현장, 기생관광에 전입되는 가난한 여성들의 현장, 일본에서 귀국하여 가난과 병고에 방치된 피폭자들의 현장, 재일교포 박종석군에 대한 허다치 회사 인종차별의 현장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억압상황의 자리에는 꼭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각 부문별 운동이 전문화되어가자 선생님은 한국여성운동의 결집체를 위해 당시의 모든 여성단체들을 모아 '여성단체연합'을 창립하는데 공헌하시고 초대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강력한 여성운동의 초석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후진성으로 하여 모든 인권운동들이 반정부운동으로 낙인찍혀서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리들은 동방 선생님 차지여서 우리를 무척 속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그 어렵고 손해나는 자리를 지키셨고 언제나 관심은 소외되는 여성들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선 정계에 진출 하실 때도 선생님은 여성운동을 정치화하려는 의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지요.

90년대 초 선생님은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들과 억압상황이 민족의 분단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며 남북의 화해를 위한 한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1991년 11월 분단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여성대표단을 영입하여 서울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성사시키신 것입니다. 노태우 군사정권하 였으나 선생님은 사방으로 정치력을 구사하셔서 놀라운 민간여성교류를 성사시켰고 이어서 1992년 9월에는 남한여성대표단 단장으로 분단선을 넘어 육로로 평양에 가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를 성사시키셨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홀로 사시면서 뜨거운 열의로 여성인권운동과 여성평화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던 선생님, 여성과 사회의 약자를 편애하셨던 선생님, 전라적 사고에 오묘된 우리에게 끝까지 순수하고 낭만적인 인간애 위주의 주장을 정색하시며 피셨던 그 모습을 추모합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뒤따르던 우리가 선생님이 지향하시던 일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2002년 6월 3일

김윤옥 드림

평화운동의 선구자, 이우정 선생님

정현택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균관대 교수)

여성운동의 궁극한 실현달이를 상징하는 낯은 '여성평화의 집', 그 가파른 계단 4층을 선생님께서는 늘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오셨지요.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늘 지지치 않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하셨습니다. 작은 키, 고운 얼굴, 소녀 같이 옛날 목소리를 지녔지만, 삶의 고비 고비를 돌아오는 긴 여정에서는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선구자적이셨습니다. 8순 나이에, 쓰러지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열정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셨지요.

군부독재 치하의 암흑한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대학에서 해직되었고, 우리 운동이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해야할 1987년에 선생님께서는 진보적인 여성운동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조직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레드 콤플렉스 속에서 스스로 내면화된 자기검열을 하고 있던 시절인 1991년에 민간교류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을 거쳐 평양을 방문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4회까지 개최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1997년에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를 설립하여, 여성평화운동에 남다른 역할을 보이셨습니다. 분단 50년 간 우리가 정치적 해결 중심의 통일운동에 집착해왔다면, 선생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 평화운동의 명아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이 땅에 여성이 주축이 된 평화운동의 편을 벌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평화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우리는 남·북간의 대결에 못지 않게 우리 안에,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군사주의와 잠재적 폭력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공존은 남한 사회 내의 대화와 화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일깨워주신 선생님, 그래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활동에도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북한동포의 굶주림, 우리가 '진달래'라 부르던 북한이탈여성들의 고단한 삶 때문에 늘 가슴 아려하시던 선생님은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선구자의 삶으로 고단해진 육신을 벗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안구를 기증하시고, 담무하신 대로 육신을 화장하고 나면,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평화의 나라를 향해 훌훌 떠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찾지요? 우리 가슴 한 가운데 남아 있는 선생님의 자취를 안고, 열심히 평화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평화가 실현되면, 선생님, 하늘나라에서라도 저희를 칭찬해주세요.

2002년 6월 3일

정현택 드림

이우정 선생님을 추모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일본 실행위원회

이우정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1991년 남북의 여성들이 분단의 벽을 넘어 도쿄에 모인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화해와 평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랜 세월을 투쟁해 오신, 신념과 정열을 간직하신 선생님의 온화한 미소는 쇠덩어리의 마음도 녹이는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포용하는 온화한 인품은 적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와 같이 따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만나볼 수 없다니요.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99년 「여성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미·일 뉴 가이드라인」 집회에서, 이우정 선생님께서 “전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아니라 여성들의 손으로 평화의 피스라인을 만듭시다”라고 제안하신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이즈미 내각이 진행하고 있는 「유사법제」를 중지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청산을 다하고 조·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남북통일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선생님의 뜻을 계승하여 일본 여성들의 운동을 일층 견고히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우정 선생님, 부디 남북 여성들, 아시아의 여성들의 투쟁을 지켜보아 주십시오.

2002. 6. 3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일본측 실행위원회

미게 무쓰고

도이 다카고

시미즈 스미고

기타 일동 드림